

20 신학부 보고

제105회기 신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신현철
서 기 임종구

1. 조직

- 1) 임 원 : 부장 신현철 서기 임종구 회계 한종욱 총무 박세형
- 2) 실행위원 : 이정화 최재영 홍성현 김유식 김광수 김인범 조학봉 계성인 이풍인 김정열 류병수
전대준 이남국 양우봉 안성국 이송희 이강석 이승호 노한상 이효섭 이병설 정병갑
- 3) 부 원 : 김은한 황재경 황선돈 최정호 오덕주 서상진 김중남 박종균 박은식 서종운 박종희
이근재 라계동 정형덕 유장춘 송형석 이경완 박수용 윤명규 최재호 하만봉 김희근
이재철 이준호 김형배 허세영 이병현 정명근 박종일 이충원 임승열 남경석 유점열
김종희 이현국 허선무 홍용희 박용태 김종준 박승호 임채훈 김자현 김재호 문성식
정금열 예동열 서정수 박은수 정창수 강제식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 일 시 : 2020. 9. 21(월) 오후
- ☞ 장 소 : 세에덴교회
- ☞ 결의사항
 - ① 임원 조직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부장 : 신현철, 서기 : 임종구, 회계 : 한종욱, 총무 : 박세형
 - ② 재정청원과 사업은 임원에게 일임기로 하다.

2) 실행위원회의

(1) 제1차 실행위원회의

- ☞ 일 시 : 2020. 11. 17(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제105회 신학부 보고에 대한 결의사항 보고하다.
 - ② 제105회 신학부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③ 신학부 신학위원 선정과 신학 선언문 작성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④ 신학부 수입사항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⑤ 105회 총회시 신학부 현장보고를 통해 결의된 여성안수불가, 여성강도권은 현행(헌법)대로하기로 한 결의대로 회의록이 채택되고 실행하기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⑥ 신학부는 제104회 총회시 연구원 5인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면 심도깊게 연구하기로 하고 제104회 연구 결과와 결의를 존중함을 확인하다.
- ⑦ 총회 각종 예배와 행사시 예배모범에 의거 진행해 줄 것을 총회임원회에 촉구하기로 하다.

(2) 제2차 실행위원 및 연구위원 연석회의

☞ 일 시 : 2021 6 17(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WEA 신학 연구의 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하다.
- ②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경에 가르침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로 결의하다.(마6:9-13)
- ③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다.
- ④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관해서는 대면 예배를 바른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상황(가령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결의하다.
- ⑤ 기타 청원서 작성과 잔무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하다.

3) 임원회의

(1) 제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0. 10. 21(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04회기 미지급금(1,742,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다.(미지급금 및 이상원교수 연구비)
- ② 실행위원 명단을 별첨과 같이 받기로 하다.
- ③ 신학부 보고에 대한 임원회의 결의사항 통지(여성안수, 강도권결의)에 대해 총회회의록을 확인하고 누락시 회의록 반영을 청원키로 하다.
- ④ 여성강도권 연구가 여성사역개발연구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신학부로 이관해줄 것을 임원회에 청원키로 하다.
- ⑤ 예배모범 개정 건은 헌법사항임으로 취급불가하며 매뉴얼 작업은 교육부가 진행중임으로 신학부가 다루기에 부적절함을 총회임원회에 의견을 보내기로 하다.
- ⑥ WEA, 주기도문, 사도신경 번역, 기도관련, 성령강림주일, 메시아니즘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다.
- ⑦ 알이랑, 문동진 건은 이대위로 이첩키로 하다.
- ⑧ 신학부 회의시 총회담당 직원의 참석을 허락하기로 하다.
- ⑨ 차기 임원회는 11월 10일 10시로 실행위원회의는 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0. 11. 17(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05회 총회 신학부 주요 결의사항을 각 노회로 보내어 홍보하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임원회 워크숍을 진행키로 하고 날짜와 장소는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0. 12. 10(목) 18:00

☞ 장 소 : 대전롯데시티호텔

☞ 결의사항

- ① WEA 관련 연구의 건은 차기 임원회까지 부장, 서기에게 연구자를 추천토록 하다.
- ② WEA 현의 노회에 현의와 관련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키로 하다.
- ③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번역의 건은 103, 104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 ④ 기도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기가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⑤ 성령강림주일 제정의 건은 103회 총회의 결정대로 하기로 하다.
- ⑥ 메니아니즘의 건은 유보하기로 하다.
- ⑦ 여성 강도권 연구의 건은 차기 임원회까지 부장과 서기에게 연구자를 추천키로 하다.
- ⑧ 총신대 신학 정체성에 대해서는 총신대에 자체 조사와 처리방안을 제출토록 문서를 보내기로 하다.
- ⑨ 신학연구위원은 부장과 서기에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다.
- ⑩ 교단 신학 정체성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도록 하다.

(4) 제4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1. 7(목) 10:00

☞ 장 소 : 화상회의

☞ 결의사항

- ① 회계가 신학부 워크숍 재정지출상황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조사 처리의 건은 총신대학교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고 소명과 대책이 부족하여 다시 보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③ WEA 현의 노회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다시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 ④ 여성사역자 강도권연구수입은 정승원교수, 임경근교수, 신현철목사, 외 1인을 추가하여 맡기로 하다.
- ⑤ WEA 연구수입은 이국진목사와 이풍인교수에게 맡기기로 하다.
- ⑥ 서기가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 준비상황을 보고하다.
준비위원장 - 오정호목사
자문위원 - 소강석목사, 배광식목사, 송병원장로, 김동권목사, 장차남목사, 서기행목사,
박성규목사, 권순웅목사, 한기승목사, 이재서총장, 최대해총장, 정규남총장,
김근수총장
운영위원 - 신현철목사, 임종구목사, 박세형목사, 한종욱목사, 고창덕목사,



연구위원 - 김길성 교수, 김요섭교수, 김광열교수, 김성태교수, 이상웅교수, 이풍인교수,
이상원교수, 임종구교수

TF팀 - 약간명 총괄 - 임종구목사

이상 조직(안)을 보고하니 서기가 각 위원을 접촉후 차기 임원회에 최종보고하기로 하다.

⑦ 차기 임원회를 1월 28일 11시에 총회회관에서 가지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1. 28(목) 10:00

☞ 장 소 : 화상회의

☞ 결의사항

- ① 총신대학교 원보사 신학사상조사처리에 대한 2차 답변서는 보고로 받고 총회보고 채택은 후에 하기로 하다.(별첨 2차 답변서)
- ② 소래노회 WEA현의안 배경에 관한 답변은 차후 신학부 전체실행위원회를 통해 다루고 그 결과를 기독교신문에 신기로 하고, 소래노회가 보내온 답변서는 신학부 WEA 연구자들에게 보내기로 하다.
- ③ 전남노회가 현의한 온라인예배에 대한 신학적으로 합당한 예배모범을 제시하기 위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한번 더 신학부의 의견서를 보내기로 하다.
- ④ 기도시작 시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질의의 건은 이풍인교수에게 맡겨 연구하기로 하다.
- ⑤ 총회신학정체성 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 조직에 대해 서기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결의하다.

- 다 음 -

총회신학정체성 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 오정호목사

자문위원 - 소강석목사, 배광식목사, 송병원장로, 김동권목사, 장차남목사, 서기행목사,
박성규목사, 권순웅목사, 한기승목사, 이재서총장, 최대해총장, 정규남총장,
김근수총장

운영위원 - 신현철목사, 임종구목사, 박세형목사, 한종욱목사, 고창덕목사

연구위원 - 김길성교수, 이상원교수, 김광열교수, 김요섭교수, 김성태교수, 이상웅교수,
이풍인교수, 임종구교수

TF팀 - 약간명 총괄 - 임종구목사

준비위원회 발족식

• 일시: 2021년 2월 23(화) 오전 10:30

• 장소: 총회회관

서기가 조직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준비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도록 결의하다.

⑥ 차기 임원회는 2월 23일에 가지기로 하다.

*별첨 : 총신대학교 원보사 신학사상조사처리보고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



총신대학교

수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경유)

제목 총신대학교 총신대보사 지도 확인의 건

본 교단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회 신학부의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의 조사처리 건' 과 관련하여 총신대보사 대상 지도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교목실장 함영주
교육복지처장, 총신대보사 주간 김정희

* 붙임 : 총신대보사 지도 확인서 1부. 끝.

총 신 대 학 교 총 장



주간	김정희	부총장	손병덕	총장	01/08 이재서
----	-----	-----	-----	----	--------------

협조지

시행 총신대보사-2021-1 (2021. 01. 08.) 접수
우 156-8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 <http://www.chongshin.ac.kr/>
전화 0 전송 / / 공개



<한남, 한서노회 헌의서에 언급된 총신대보 기사에 대한 학생지도 확인서>

-주제: 한남, 한서노회 헌의서에 언급된 총신대보 기사에 대한 총신대보사의 입장 확인 및 지도

-참석자: 김정희 교수(현 총신대보 주간교수), 김준수 직원(교육복지처), 최이레 편집국장(발령일 2020. 9-현재)

-일시 및 장소: 2020. 12. 18. 14시-15시. 제1종합관 1층 교육복지처 사무실

- 내 용 -

- 총신대보사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문화 창작과 자유언론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임. 헌의서에 언급된 총신대보사의 기사는 2018. 4. 26(339호 발행) - 2019. 5. 23(346호 발행)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 최이레 총신대보사 편집국장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대학과 총회건지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전달 함.
- 당시 편집국장을 역임한 학생들은 나수진(337호-340호 발행, 2019. 2. 27. 자퇴), 심지연(341호-343호 발행, 2020. 2. 12. 졸업), 김지원(344호-349호 발행, 현재 휴학)으로, 해당 기사들의 경우, 동의, 옹호, 지지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닌 사회 이슈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본 교단의 개혁주의 보수신앙에 근거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도 함.
- 현 최이레 편집국장은, 총신대보의 발전을 위한 학내 많은 분들의 자문을 얻고 있으며,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문을 발행하고자 늘 기도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총신대보 집필 시 학교의 개혁주의 보수신앙 정체성에 기반하여 올바른 기사를 작성할 것을 지도하고 다짐하였음.
- 이상 총신대보사 편집국장에 대한 지도결과를 확인함. 끝.

2020.12.18

총신대보 주간 교수 김정희

(6) 제6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2. 23(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회의 긴급 재정 운영 협조의 건에 대해서 재정부에 신학부 연구비는 80%로 요청기로 하다.
- ② 예배모범 수입연구 사항 건은 2명의 연구자를 다음 회의에서 선정기로 하다.
- ③ WEA 신학연구 및 교류금지에 관한 공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기로 하다.
- ④ 총회정체성선언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 중 3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기로 하여 이를 허락기로 하다.
- ⑤ 차기 임원회는 3월 11일 목 오전 10시 30분에 새로남교회에서 가지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4. 16(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수입 연구 논문이 제출된 경우 연구 수입비를 각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다.
- ② 수입 연구 논문이 제출됨으로 전체 연구 논문 검토를 위한 신학부 세미나를 5월 13~14일 가지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5. 14(금) 9:00

☞ 장 소 : 오색그린야드 호텔

☞ 결의사항

- ① 여성강도권 연구 논문 4건은 기독교신문에 연재하기로 하고 3페이지 요약본 제출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전체 실행위 6월 17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③ 신학부 연구수입안건 논문 마무리 자체세미나는 7월 8~9일에 가지기로 하다.
- ④ 연구수입논문의 수정부분은 실행위원회 전까지 제출받기로 하다.
- ⑤ 6/11 신학부 임원회를 11시에 광주에서 갖기로 하다.

(9) 제9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6. 11(금) 11:00

☞ 장 소 : 광주중앙교회

☞ 결의사항

- ① 신학부 전체 제2차 실행위원회 준비사항을 점검하다.



(10) 제10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7. 8(목) 19:00

☞ 장 소 : 강원도 텔피노리조트

☞ 결의사항

- ① 제105회기 신학부 사업과 수입의 건을 점검 확인하다.
- ② 총회신학부 정체성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 수입 연구논문을 점검하다.
- ③ 7월 말까지 보고서 작성과 청원서 작성을 서기에게 맡겨 준비하도록 하고 차기 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다.

(11) 제11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7. 28(수) 14:00

☞ 장 소 : 화상회의

☞ 결의사항

- ① 신학부 연구수입 책자를 출판하기로 하고 신학부 남은 재정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다.
- ② 차기 임원회를 7월 31일 오전 10시에 화상회의로 하기로 하다.

(12) 제12차 임원회의

☞ 일 시 : 2021. 7. 31(토) 10:00

☞ 장 소 : 화상회의

☞ 결의사항

- ① 제106회 총회보고서는 서기가 준비한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제106회 총회 청원서는 서기가 준비한 유인물대로 바고 추가할 사항은 부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신학부 연구 수임에 관한 최종보고서〉

1. 성경에 소개된 여성 사역자에 대한 칼뱅의 입장

박형대 교수(충신대)

교단으로부터 '신구약 성경의 여성사역자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이라는 글을 부탁받고, '신구약 성경의 여성사역자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에 대한 최근 논의를 보여주는 글들을 읽어보았다. 첫째, 에셀만(Nathan Eshelman)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을 위해 모인 의원들이 '과부-집사(widow-deacon)'에 대해 어떤 의견이었는지, 비비(롬 16:1-2)가 '과부-집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정리하였다. 1643년 12월 29일부터 1644년 1월 1일까지 이뤄진 이 논의에서, 우선, '과부-집사가 집사직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의회(the Westminster Assembly)는 "한 표 차이로(by one vote)" 가능하다고 보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집중한 에셀만의 논문을 통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긴 여성 사역자에 대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칼뱅의 신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권사 제도'를 비판한 이정숙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그의 비판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 '집사 단어군'의 용례 연구를 통해 로마서 16장 1-2절에 등장한 비비의 역할에 대해 제시한 아간의 글을 통해서도 여성 사역자 문제해결을 위해 성경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20세기 후반 사회현상이 여성 사역자에 대한 제도 및 칼뱅주의에 미친 영향을 다룬 무튼과 호튼의 글을 통해 현재 여성사역자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과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럼, 신구약 성경에 소개된 여성 사역자는 누구이고, 칼뱅은 이 여성 사역자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신구약 성경에 함께 소개된 여성 사역자로는 '여선지자'라 불리는 이들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여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은 미리암(출 15:20), 드보라(삿 4:4), 홀다(왕하 22:14; 대하 34:22), 이사야의 아내(사 8:3), 노아다(느 6:14)이다. 신약성경에서 '여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눅 2:36)와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계 2:20)이다. 이들 가운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노아다(6:14)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2:20)은 칼뱅 저작인 『기독교강요』와 그의 주석 시리즈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암, 드보라, 홀다, 이사야의 아내, 안나에 대해 칼뱅이 어떻게 평가하고 주석했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여선지자' 가운데, 미리암, 드보라, 홀다, 이사야의 아내, 안나를 칼뱅이 어떻게 평가하고 소개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리암의 경우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소개된다. 미리암의 부정적인 모습이 여성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드보라와 홀다의 경우, 미리암처럼 부정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별반 차이 없는 인물로 귀결된다. 반면, 이사야의 아내는 특별히 수행한 사역이 없지만 인정받는다. 안나도 칭찬은 받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의 예언 사역보다는 '경건 훈련'이 부각된다. 안나가 과부로서 좋은 모범을 보였지만, 디모데전서 5장의 '과부'가 안나와 같은 기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칼뱅 저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강도권에 대한 교회법신학적 이해와 여성 강도권 부여의 타당성 연구

신현철 박사(신학부장)

사회의 변화 속에 여성의 역할을 다양한 분야에서 점증되고 있다. 또한 교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정당하고 바른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논의는 매우 요긴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성경신학적 연구, 혹은 조직신학적 연구에 그쳤지만, 실상 교회법신학적 관점에서 강도권 자체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 여성에게는 강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개혁교회에서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할 권세는 누가 갖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권세를 교회가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중세교회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개인이 갖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자체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직분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장로회주의의 법신학은 만인제사장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성도에게도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전도하는 권리를 일부 인정하지만(유사강도권), 교회의 강도권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닌 부르심과 위임을 통해 세워진 직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공적 해석과 설교 및 가르치는 전반의 권세는 강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목사에게 귀속되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그 강도권을 기초한 치리권을 통해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고 다스린다. 함께 협력하는 치리장도들도 동등한 치리권을 갖지만, 목사의 강도권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강도권은 교회의 모든 치리권을 대표하는 권리이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며, 동시에 말씀과 성례적, 예전적 권리를 총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위임목사가 모든 말씀사역을 다 담당할 수 없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고, 각종 예배와 공부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혼자 담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와같은 일에 협력하도록 말씀 사역자를 세웠고, 또 말씀 봉사자를 세웠다. 전도사, 강도사, 위임받지 않은 목사, 선교사 등이 거기에 해당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 구역교사, 각 소그룹 리더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간혹 이들이 감당하는 말씀 사역(또는 봉사)을 강도권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강도권에 협력하는 “강도적 사역권” 내지 “강도적 봉사권” 일 뿐이다. 결국 강도권이라 함은 교회의 당회장권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개혁신학적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목사로서 안수하는 것을 금한다. 따라서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다면 강도권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강도권이란 결국 목사에게, 그것도 위임목사에게 전속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이 강도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물론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바 강도적 사역에 봉사할 권한(유사 강도권)이 여성에게 소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이나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강도권의 부여나, 강도사 인허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적 여성관, 즉 상호보완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심도 깊은 교회법신학적, 실천적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3.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 부여, 가능한가?

임경근 교수(다우리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vrijgemaakt*, art. 31, 이하 GKv)가 2017년 메펠(Meppel) 총회에서 여성에게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0년 후스(Goes) 총회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최종 확인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GKv는 보수적 개혁신앙을 파수해 왔다고 자타가 공인했다. 이번 여성 직분 개방 결정은 자매 교단이나 교회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교단 내부 교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교단 분열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장고신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GKv와 1968년 이후 자매관계를 맺으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예장고신은 줄속 ‘합동’과 급속 ‘환원’(1959-1962)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를 해외 교회와의 자매결연으로 매워보려 했을까? 1965년부터 네덜란드 개혁교회 GKv와 자매관계를 맺기 위해 대표단을 파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1964년 결성된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협의회>(REC/RES: Reformed Ecumenical Council/Synod)에 가입하려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장고신의 REC 가입 시도가 고신교회의 네덜란드 개혁교회 GKv와의 자매관계 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GKv가 예장고신이 국제교회연합 단체 REC 가입을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을 내쫓은 네덜란드 개혁교회(GKN: 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이하 ‘GKN’)가 여성에게 모든 직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 GKN 총회가 여성에게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었다.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REC’에서 교회의 여성에게 직분자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1968년 암스테르담 REC은 여성에게 목자와 장로직 허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GKN은 REC의 결정을 무시하고 여성 안수를 최종 허용했다. 마침내 1969년 GKN 총회는 여성에게 교회의 모든 직분을 허용했다. 그후 GKN은 신학적으로도 급진적이고 WCC에도 이종 가입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GKv는 예장고신이 REC에 가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민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 역사를 가졌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GKv가 지난 2017년 메펠(Meppel) 총회에서 충격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여성에게 모든 직분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비판하고 비난했던 상대 교회 GKN의 잘못된 전철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GKv는 2020년 후스(Goes) 총회에서 2017년의 결정을 재확인 했다. 2017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uncil of Reformed Churches)는 초대 발기 교회였던 GKv의 회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4년 후에 열리는 2021년 ICRC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회원권은 최종 종료되고 위원회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COVID-19로 연기된 ICRC는 2022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국 정통장로교회(OPC), 캐나다 개혁교회(Canadian Reformed Church), 호주 개혁교회 등이 GKv와의 자매관계를 끊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변화 속에 연관된 ‘네덜란드 개혁교회 GKN’와 ‘개혁교회 에큐메니컬 협의회 REC’,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 GKv’에서 여성 직분 개방과 관련해 논의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다.



4. 창조질서와 여성의 강도권

정승원 교수(총신신대원)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졌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지만 처음 창조의 질서는 여전히 여전하다. 암수 혹은 남녀를 통한 생육과 번성은 계속되었고 여전히 하늘의 별들은 5000년 전과 같이 운행하고 있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여러 관계와 질서를 세웠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인해 남자와 여자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미 창조 당시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전하다(창 9:6; 약 3:9). 구속질서와 창조질서는 구속주와 창조주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가 무의미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본질과 역할은 타락 전에 허락하신 것이며 타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갈 3:26,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당시 하나였다. 죄로 인해 서로 불신하며 원수가 되었던 남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창조 당시 주어진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뀐 것이 아니다.

강도권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성경은 오직 남자에게 목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딤후전 3:2-5를 보면 감독(목사 및 장로)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말씀하고 “사람[남자]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과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창조질서에 속한 사안들이다. 목사의 자격을 창조질서에 근거하여 정하셨음을 볼 수 있다.

창조질서는 결코 한 쪽을 무시하거나 낮추지 않는다. “사람[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말씀하셨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한글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히브리어 에제르(עֵזֶר)는 한글 번역처럼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도움” 혹은 “돕는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배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케네게도(קַנְיָהּ)는 한글 번역처럼 명사가 아니라 “그에게 알맞은”이라는 전치사구이다. 아내란 남편을 돕는 비서라는 뜻이 아니라 아내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차원의 “돕는 자”라는 말씀이다. 남편이 집을 다스리는 가장이라고 해서 결코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다른 평신도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고유 권한이다. 목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도권에서 발견된다.

한편 사도행전에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나타난다. 행 8:3을 보면 바울이 다소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둘 때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행 18:26에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 사역자들에게 문안하는 롬 16장을 보면 28명의 사역자 중에 여성 사역자들이 10명이나 된다. 1/3이 넘는다. 뫼뵈(1절), 브리스길라(3절), 마리아(6절), 유니아(7절), 드루배나와 드루보사(12절), 버시(12절), 루포의 어머니(13절), 율리아(15절), 네레오의 자매(15절) 등 10명의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라고 부탁하신다. 이들은 단순히 봉사자가 아니라 복음 사역에 앞장 선 여성 사역자들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한다. 디모데는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은 디모데였다. 따라서 여성에게 목사 차원의 강도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각자의 은사와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권은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5.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국진 박사(전주 예수비전교회)

WEA는 배교의 길, 종교다원주의의 길, 종교통합의 길을 가고 있기에,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항간에 널리 퍼져 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교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보면, WEA에 대한 과도한 억측뿐임을 알 수 있다. WEA는 적대시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세계 교회 연합단체이다.

우선 WEA가 2011년 로마 가톨릭 그리고 WCC와 함께 합의한 문서인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주장하지 않으며,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금지하는 문서가 전혀 아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란 종교 간에 서로 오해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성하면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일 뿐이다. 지침 3항 “타 종교가 지지하는 시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번역은 오역(誤譯)이다. 오역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WEA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든 것은 안타깝다. 지침 3항은 다른 종교를 “잘 이해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일 뿐이다. 이 문서는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금지하자는 문서가 아니라, 전도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에 합의한 것일 뿐이다.

WEA가 참여하는 GCF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만 믿는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온갖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비난은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말이나?”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단 말이나?”라고 비난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발언의 맥락을 무시한 과도한 비난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기독교가 세례의 방식, 예장론/예지론, 무천년설/천년년설, 장로교 시스템/감독 시스템, 예배 시 악기 사용/무사용 등등과 같은 것들로 갈라져 왔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잠재하고 연합하자는 의도였을 뿐이다. WEA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신앙고백에서, 또한 여러 문서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맥락을 벗어난 비난은 옳지 않다.

WEA가 전통적인 구원관을 포기하고 사회복음에 치중한다는 비난은 과도한 비난이다. WEA는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순수한 복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WEA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다.

WEA와 안식교나 유대교와 연합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과도한 비난이다. 물론 안식교회와 회동을 하고 유대교와 회동을 하고 일종의 합의문 같은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WEA가 종교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공동 선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 가운데 전통 기독교의 진리를 양보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교류/단절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수준에서 교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만 교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현재 알미니안 신봉교단(감리, 성결)이나 WCC가입교단(감리, 통합)이 포함된 한국교회총연합과도 교류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알미니안 신학을 신봉하게 된 게 아니다. 교류의 수준/단계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WEA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건전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 연합기관이다. 우리 교단에서 교류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6.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본 WEA와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이풍인 교수(총신신대원)

현재 우리 교단은 지난 몇 년 동안 WEA(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복음주의연맹)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다. 104회 총회에서 ‘WEA와의 교류 단절 청원’을 부결시켰다.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537명, “단절해야 한다”에 448명이 투표하여 결과적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105회 총회에 WEA와의 교류 관련 건이 다시 현의 되어 특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재론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난 105회 총회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단 몇 시간 만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WEA 특별위원회가 지역별로 찬반 공청회를 진행하여 WEA에 대해 교단 내 목회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공청회에서 WEA와의 교류에 대해 필자는 찬성 입장에서 글을 쓰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할 부분이 있다. 비록 필자가 찬성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결코 WEA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WEA에 가입하지는 현의안은 올라온 적이 없다. 104회 총회에서 교류 단절 청원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어 올라온 청원이기에, 이 사안은 WEA에 가입하기 원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살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교류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취지의 현의안이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교단은 WE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WEA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절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에 WEA와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교류 정도만 하자는 입장이다.

WEA에 대해 살펴면서 우리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WEA에 대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인사가 WEA에 깊이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지도부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적이 없기에 그냥 밖에서 WEA를 보고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는 WEA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떨어진다. WEA는 결코 하나의 신학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는 단일조직이 아니다. WEA는 복음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협의회로 현재 다양한 교단들과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WEA의 멤버십은 크게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지역과 국가적 연맹, 2) 협력회원, 그리고 3) 교회 네트워크들과 교단들이다. 협력회원의 구성은 실로 다양하여 성경 번역에 주력하는 위클리프선교회, 아동 사역에 집중하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네비게이토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난민들을 위한 국제협회, 성경 보급에 힘쓰는 Holy Bible Society와 아시아신학협의회(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언급한 몇몇 단체들만 보아도 협력기구들이 얼마나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WEA의 회원이다. 우리 교단은 2014년에 한기총을 탈퇴했기에 우리 교단과 WEA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우리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와 우리와 형제 교단인 미국장로교회(PCAC)가 WEA의 회원이다. 또한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이 후원하는 단체들이 WEA의 회원이다. 위클리프선교회, 월드비전, 컴패션, 네비게이토선교회, 오픈도어선교회 등이다. 교회들마다 이런 단체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교단이 가입하지도 않은 WEA와 단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만약 우리 교단이 WEA에 정식으로 가입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WEA의 신학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단이 WEA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기에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나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 WEA와 교류 단절을 하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 만약 교류 단절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WEA에 가입한 단체들인 컴패션, 월드비전,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을 후원해온 교단 산하 교회들에 이 단체들과의 교류나 후원을 금지시킨다면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부디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7.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 합당한 것인가?

이풍인 교수(총신신대원)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공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적인 기도에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증보자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성도들이 배웠다. 그러기에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들으면 어색하게 느낄 수 있다. 결국 이 주제의 핵심은 ‘주님’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모호성과 관련이 있다. ‘주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미하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에 사용된 ‘주님’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신약성경에 나타난 주 칭호(퀴리오스) 용례

신약성경에서 명사 형태인 주(퀴리오스)는 719회 사용되었다. 디도서와 요한 1, 2, 3서 외에는 모든 책에 등장한다.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는 바울이 총 275회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누가로 누가복음에서 104번, 사도행전에서 107번 사용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80번, 요한복음에 53번, 요한계시록에 23번, 마가복음에 18번, 히브리서에 16번,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에 각각 14번씩, 베드로전서에 8번, 그리고 유다서에 7번 사용되었다.¹⁾

신약성경에 사용된 ‘퀴리오스’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세속적인 의미인데, ‘집 주인’과 ‘소유자’, 혹은 종이나 청지기와 관련해서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많은 구절들을 들 수 있지만,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 9:38; 10:24, 25; 13:27; 18:25-34; 20:8; 24:45-50; 막 12:9; 13:35; 눅 10:2; 12:36; 12:42-47; 13:8, 25; 14:21-23; 16:3, 5, 8; 19:16-25; 20:13, 15; 요 13:16; 15:15, 20; 행 16:16, 19; 롬 14:4; 엡 6:5; 골 3:22; 4:1절 등이다.²⁾ 가족 중 아버지(마 21:29 이하)나 남편에게(벧전 3:6), 혹은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이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행 25:26; 마 27:63).³⁾

둘째, 퀴리오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제외한 다른 신약성경 책들에 이 용례가 등장한다. ‘주의 천사’(마 1:20, 24; 2:13, 19; 28:2; 눅 1:11; 2:9; 행 5:19; 8:26; 12:7, 23), ‘주의 길’(행 18:25), ‘주의 말씀’(행 8:25; 12:24; 13:48-49; 15:35, 36; 19:10, 20; 살전 4:15; 살후 3:1), ‘주의 날’(고전 5:5), ‘주의 이름’(약 5:10), ‘주의 손’(행 11:21)과 같은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킨다.⁴⁾

셋째, 이 칭호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마 1:20, 22; 3:3; 4:7, 10; 5:33; 막 1:3; 5:19; 11:9, 10; 눅 1:6, 9, 15, 16, 17, 25, 28, 32, 38, 45, 46, 58, 66, 68, 76; 2:9, 15, 22, 23, 24, 26, 39; 3:4; 4:8; 요 1:23; 5:4; 12:13, 38; 행 1:24; 2:20, 21, 25, 34, 39, 47; 3:20, 22; 롬 4:8; 9:28, 29; 10:12, 3, 16; 11:3; 고전 1:31; 2:16; 3:5, 20; 4:19; 고후 5:11; 6:17, 18; 8:19, 21; 10:17, 18; 딤후 2:14, 19, 22, 24; 히 1:10; 7:21; 8:2, 8, 9, 10, 11; 10:16; 약 3:9; 4:10;

1) J. A. Fitamyer, “κύριος, ου, ὁ” in H. R. Balz & G.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2(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0), p.329.

2) EDNT, p.329.

3) EDNT, p.329.

4) EDNT, p.329.



5:4; 벰전 1:25; 2:3; 벰후 2:9; 3:8; 유 5, 9, 14; 계 1:8; 4:8, 11; 11:4, 15; 18:8; 22:5, 6)⁵⁾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칭호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신약의 계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성경에서 ‘주님’ 혹은 ‘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퀴리오스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에서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모호할 수밖에 없다.

2.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성도의 기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일차적인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한다(엡 6:18).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중보자가(히 7:25)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히 4:14-16; 10:19-25). 요약하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고전 16:22)나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행 7:59)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나, 전형적인 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우리의 공적인 기도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글을 정리하면, 공적인 기도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모두를 의미하는 “주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같은 형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듣는 성도들도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 EDNT, p.330.

8. 온라인 비대면 예배 수용 여부에 관한 실천신학 관점의 연구 :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정당한가?

양현표 교수(총신신대원)

1. 현재 상황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목회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다만 그 사용이 단순히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돕는 역할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출현 이후, 디지털 미디어는 보조 수단이 아닌 주체적 수단으로 되어버렸고,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교회 내부적으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자의 전인격적 반응, 공동체성, 그리고 한 편의 드라마로서의 예배가 주는 감동을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관한 논점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첫째, “비상 상황”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성전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대하 6:28-29), 역사 속 전염병 창궐 시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취한 조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회의 공공성 등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둘째, 신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때, 공동체성이나 장소의 개념을 전통적인 장소 중심의 견해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확정적인 성경신학적 혹은 조직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실제로 현장의 사역자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 거룩한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극히 드물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예배의 사유화와 개인화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인 교회의 존립에 위험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 하겠다.

반면,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모인 대면공동체이며, 이는 영적이며 실재적이기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세속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대면 예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상황에 대한 몰인식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신앙생활 형태”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3. 대안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관하여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예배의 본질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살아 있는가이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배의 본질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형식은 서로 구별하여 뉘 수 없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라는 형식만으로는 예배의 본질을 충분히 담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 식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이 시대의 변화된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예배당 대면 예배라는 형식만을 고집한다면 교회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끌고, 오프라인은 다시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온라인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그렇다 하여 지금의 상황에서 오프라



인 대면 예배만을 고집할 수 없다. 결국엔 대면에 기초한 비대면 예배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가능한 대면 예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비대면 예배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

4. 나가는 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비상 상황의 임시적 방편으로 여겨야 하는가? 이러한 예배 형식에 관한 논의는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온라인을 비롯하여 모든 디지털 기술과 자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이 시대의 문물을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 여부가 논쟁거리가 된 지금, 그 형식의 문제로 논쟁하기보다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욱 바람직하다.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오정호
서 기 임종구

1. 조직

- 1) 준비위원장 : 오정호목사
- 2) 자문위원 : 소강석목사, 배광식목사, 송병원장로, 김동권목사, 장차남목사, 서기행목사, 박성규목사, 권순웅목사, 한기승목사, 이재서총장, 최대해총장, 정규남총장, 김근수총장
- 3) 운영위원 : 신현철목사, 임종구목사, 박세형목사, 한종욱목사, 고창덕목사
- 4) 연구위원 : 김길성교수, 이상원교수, 김광열교수, 김요섭교수, 김성태교수, 이상웅교수, 이풍인교수, 임종구교수
- 5) TF팀 : 약간명
- 6) 총괄 : 임종구목사

2. 회의

1) 제1차 연구교수회의

- ☞ 일 시 : 2021. 4. 16(금) 10: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교단헌법을 비롯한 정체성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다.

2) 제2차 연구교수회의

- ☞ 일 시 : 2021. 5. 20(목) 10: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 차기 회의는 추후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하다.
 - ② 아래의 순서대로 발제하다.
 - 1) 김길성 교수 :
원고 1 - 신앙고백서와 총회신학정체성 연구: 통합 교단의 신앙고백서 평가를 중심으로



- 원고 2 - 신앙고백서와 총회신학정체성 연구: 『헌법』에 따른 교단별 신앙고백서 비교
- 2) 이상원 교수: 개혁주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들
〈동성애와 동성혼, 낙태, 시험관 수정, 줄기세포, 안락사, 인공지능〉
 - 3) 김요셉 교수: 제네바에서 웨스트민스터까지:
〈종교개혁 시대 이후 개혁파 신앙고백의 배경과 교회 이해〉
 - 4) 이풍인 교수: 신약성경에 나타난 신앙고백들과 총회 신학정체성 연구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 5) 이상웅 교수: 죽산 박형룡과 예장합동의 신학적 정체성
 - 6) 임종구 교수: 예장합동의 신학정체성연구
〈기장 제6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7) 김광열 교수: 개혁신학의 성화론과 총회 신학정체성 연구
〈총신의 성화론 논의를 중심으로〉
 - 8) 김성태 교수: 예장 합동 총회의 교회 연합과 협력의 성경적 신학적 원리연구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연구수임안건 최종보고

1. 신앙고백서와 총회신학정체성 연구 : 통합 교단의 신앙고백서 평가를 중심으로

김길성 명예교수(총신신대원)

WCC 가입문제와 WCC에 대한 입장차이로 통합 교단이 분열(1959)한 후 62년이 지난 현재, 통합 교단에서 채택한 신앙고백서를 통해 통합 교단의 신앙과 신학의 변화와 변질을 살펴보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통합 교단 총회에서 채택하고 『헌법』(2019, “제1편 교리”)에 실린 신앙고백서는 6개이다.

사도신경, 신조(12신조), 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일명 ‘1986년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일명 ‘21세기 신앙고백서’), 이상 6개이다.

- 1) “제1부 사도신경”이 있고, 2007년 9월 10일 개정된 것을 싣고 있다.
- 2) “제2부 신조”에는, 12신조가 제시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 제12조이다. 통합 교단의 “제2부 신조”에 나타난 큰 변화는, 우리 교회의 “I. 신조”에 제시된 불신자의 정죄함과 형벌에 대한 구절을 삭제한 것이다. 통합 교단의 “제2부 신조” 중 제12조에서 불신자의 정죄함과 형벌에 대한 구절이 삭제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우연이 아니다. 현재 통합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통합 교단이 채택한 ‘신조’(12신조)는, 통합 교단이 현재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실린 ‘선언문’의 신학사상과 방향을 따라서, 불신자의 정죄함과 형벌을 가르치는 구절을 삭제하여, 한국의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공히 고백해온 ‘12신조’의 내용을 훼손하고, 그 신학을 변경하여, WCC(세계교회협의회) 운동을 주도하고 여성임직과 동성연애자 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현 미국 장로교회(PCUSA)의 신학적 입장과 노선을 같이하고 있다.
- 3) “제3부 요리문답”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107문)이 제시된다.//대요리문답은 삭제함
- 4)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 원본의 취지가 상실된, 미국 장로교회의 “1903년 신앙고백서” 개정안을 따라서, 제34장(성령에 관하여), 제35장(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대하여)이 추가되고, 또한 선언문(제3장과 제10장 3절 관련)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선언문”은 선언문의 필요성을 말한 서문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3장과 제10장 3절의 원문 내용을 수정하고 새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된 “선언문”에 담긴 새 해석은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선언문”에 담긴 내용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문대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말하는 예정(제3장 관련)에서, 성경대로 이중 예정(선택과 유기)에서 유기 교리를 삭제하고, 또한 모든 어린 아이의 구원을 제시(제10장 3절 관련)하고 있다.



- 5)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일명 ‘1986년 신앙고백서’)와 6)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일명 ‘21세기 신앙고백서’)는 현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며 작성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신앙고백서’의 여러 부분에서 성경관을 비롯하여 성경의 여러 교리들에서 성경비평과 역사주의비평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오히려 칼 바르트와 몰트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으며, WCC 신학을 추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고백서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WCC 신학의 조류를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21세기 신앙고백서’의 그 깊숙한 밑바탕에는 외형적이며 가시적인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고, 사회참여와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보편구원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주장하는 WCC 신학노선을 추종하는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통합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공적인 신앙고백이요, 통합 교단의 현재와 미래의 신앙적, 신학적 방향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개혁주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들

- 동성애와 동성혼, 낙태, 시험관 수정, 줄기세포, 안락사, 인공지능 -

이상원 교수

- 1) **동성애와 동성혼.** 젠더주의 성윤리는 인간의 성별을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성경은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질서로서 정해주신 것으로서, 인간이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이며, 다른 추가적인 성은 없다. 동성애주의자들은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향임을 주장하나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일이 없으며, 후천적인 습관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서, 의지를 통하여 절제가 가능한 욕구다. 동성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간의 성관계는 성병, 에이즈, 기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한다. 동성혼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한다.
- 2) **생명의 시작점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생명이 시작된다. 따라서 수정 이후의 전 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낙태는 살인행위다. 태아의 생명권은 임산부의 행복권에 절대적으로 선행한다. 다만 임산부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생명권이 선행한다. 시험관수정은 높은 실패율 때문에 배아살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배아줄기세포추출과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추출은 배아살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종간교잡배아줄기세포는 인간과 동물의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살해를 거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
- 3) **생명의 종결 점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까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생명이다. 따라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기 이전의 어느 순간이든지 자의적으로 인간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제6계명을 범하는 죄다. 생명의 존엄성은 환자의 고통의 경감 보다 월등히 높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무의미한 특수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의적으로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인간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 4) **인공지능.** 인공지능에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논리적 추론과 연산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의 표현이며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이다. 그러나 약한 인공지능이 지닌 막강한 기술은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인간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약한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인간을 논리적 추론과 연산능력으로 환원시키는 지능 환원주의적인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모든 기능들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인조인간으로서,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다. 강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반이상향에 집중한 나머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영생과 이상적인 나라는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지주의적인 가상현실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간기술을 이용하여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



3. 죽산 박형룡과 예정합동의 신학적 정체성

이상용교수(총신신대원)

널리 알려진대로 죽산 박형룡 박사(1897-1978)는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수(1931)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장로회신학교와 총신에 이르기까지(1972년 은퇴) 40여년 동안 장로교 신학 교육에 종사했고, 표준적인 교의 신학 집필과 수 많은 신학 논문들을 통하여 교단 신학의 정초와 확립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고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대해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산의 글들을 참조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초기 저작인 『근대 신학 난제 선평』(1935)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년에 쓴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1976)이라는 논문까지 몇 가지 문헌을 통해 죽산이 규명한 한국 장로교회 신학적 전통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초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40여년에 걸친 죽산의 활동과 공표된 글들을 참고해 볼 때 죽산은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전해준 칼빈주의 정통 신학에 착근하여 신학을 했고, 그러한 신학적 전통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죽산은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대한 확신에 바탕하여 장로교 표준문서들이 해설하는 바를 기준으로 삼고, 서구의 수많은 개혁신학자들의 신학 저술들을 근거로 하여 한국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라는 것을 빚어내었다. 신학 형성 과정을 보면 죽산의 신학적 정체성은 구프린스톤 신학 전통이 먼저였고, 거기에 남침례교 신학의 건전한 면이 더하여졌고, 후일에 루이스 벌코프와 G. C. 베르카워를 통하여 화란 개혁주의 전통의 장점들이 가미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죽산이 말하는 신학적 정체성은 단순히 영미 청교도 신학과 장로교 신학만도 아니고, 화란 개혁주의만도 아닌 것이다. 죽산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전통의 장점들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자신의 특이성을 가지는 신학 전통을 완성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개혁파 교리들을 해설함에 있어서는 바빙크와 베르카워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는 것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산이 강조하는 신학과 신학의 핵심은 청교도 개혁주의라는데 있다. 이는 한편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학습과 전승에 강조를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천적인 전도와 경건생활도 강조한다는 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죽산의 신학 수업 이전 선교사들의 영향하에 신앙이 형성되고 훈련되던 시기부터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가 신성중학교와 송실전문에 재학 중일 때에 이미 선교사 교수들의 영향 아래에 성경의 권위를 굳세게 믿고, 경건 생활 훈련에 치중하고, 주일의 안식일적 성수, 개인 전도의 실천 등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죽산이 청교도 개혁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한 가지로 강조했던 요소는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 또한 후대의 신학 교육을 통해 강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뿌리는 이미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전천년설적인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산에게서 확인하고 배우게 되는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기초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죽산은 그 근거 위에서 영미권과 유럽권의 개혁주의 표준문서들에 뿌리를 내리되, 특히 장로교회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에 따라 신학하고, 주요 개혁신학자들의 저술들을 통하여 풍성한 신학 해설들을 원용하여 한국형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4. 예정합동의 신학정체성연구 - 기장 제6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임종구 교수(대신대)

1. 연구주제의 의미

한국장로교회는 해방과 함께 합동, 통합, 기장, 고려등의 4개 교파로 분열했다. 그 첫 분열은 고려파의 분열로 신사참배나 고려신학교의 총회 인준문제, 박형통박사의 고려신학교 교장직 사임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분열은 기장의 분열로 신학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이후 통합의 분열 역시 신학적 문제가 원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의 신학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장분열을 중심으로 신학적 특징을 간략히 살피게 될 것이다.

2. 기장 제6문서의 신학적 특징과 분석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의 교단공식문서는 총회를 통해서 인준되어진 공적인 문서로서 기장의 신학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문서에서 제6문서까지 인준되었고, 그 가운데서 4대문서는 제1문서에서 제4문서이다. 그리고 제5문서는 지금까지의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문서를 시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사실상 현재의 기장의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다. 제6문서는 회년문서로 알려져 있고, 제7문서는 총회 100회를 맞아 현의되었으나 부결된 상태에 있다.

3. 기장 제6문서의 특징과 교훈

기장 제6문서는 기장교단의 출발과 신학, 지향점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2문서는 교육과 사회정책을 담고 있고, 제3문서는 신앙고백서(1972)를, 제4문서를 선교정책을 담고 있고, 제5문서를 보완문서로 제6문서는 회년문서로 각각 시대의 변천과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는 기장교단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본 기장의 공문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장 제6문서의 특징

1. 에큐메니칼의 입장에 서 있다.
2. 사회구원의 입장에 서 있다.
3. 칼 바르트 신학의 입장에 서 있다.
4.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추구하고 있다.
5.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입장에 서 있다.
6. 성경관과 성경해석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 서 있다.
7. 여성안수에서 시작하여 동성애허용을 향하여 가고 있다.

4. 결론

현재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성경무오, 구원의 유일성등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간통과 낙태를 법으로서 허용하고, 다음 차례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허용, 동성결혼 허용을 향해 가고 있다. 여기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교단이 기장교단이다. 기장교단을 이어 여타 다른 장로교단들이 그 흐름가운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관과 성경해석에서 자유주의 입장에 서게 되면 50년을 넘지 못해서 동성애의 문 앞에 서게 된다는 점이 기장의 공문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특별히 기장은 세계교회의 경향에 동조한다는 교단의 대원칙을 천명하였으므로 현행 WCC교단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성애 허용으로 갈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5. 제네바에서 웨스트민스터까지

김요섭 교수(총신신대원)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 각국의 개혁파 교회들은 각 나라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들을 제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신앙고백들을 해설하고 가르치기 위한 신앙교육서(Catechism)들을 작성해 사용했다. 이 문서들은 유럽 각국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세우고 로마 가톨릭 권력의 위협과 급진세력이 불러일으킨 혼란에 맞서 교회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으로 활용되었다. 이 신앙고백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언어로 작성된 만큼 그 구조와 진술상의 강조점,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교회의 정의, 참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의 제도 등 교회론에 해당하는 진술들은 각 지역의 상황적 차이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 신앙고백들은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 개혁의 기준을 고백함에 있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헌신, 교회의 영속성에 대한 확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등 개혁신학 교회론의 핵심점들을 선명하게 공유했다.

본 연구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작성된 신앙고백들을 분석하여 다음 세기에 잉글랜드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까지 계승된 개혁파 교회의 이해를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여 목적은 개혁신학의 교회론을 대표하는 주요 신앙고백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혁파 교회론의 요점을 규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16세기 신앙고백들 가운데 상호 관련성이 분명한 네 편의 대표적인 신앙고백들을 선택하여 검토한다. 이들은 1537년 1월 스위스에서 작성된 제네바 신앙고백(Genevan Confession of Faith), 1559년 5월 프랑스 개혁교회의 파리 총회에서 공인한 프랑스 신앙고백(French Confession of Faith),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인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cottish Confession of Faith), 1561년 저지대지방(Belgica)에서 작성되어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표준문서로 채택된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of Faith)이다.

이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6-17세기 개혁파 신앙고백의 교회론적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교회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교회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영속할 것을 고백하고 소망했다. 이점에 있어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공동체의 기도였다. 둘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여 교회 개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했다. 신앙고백들의 조항들은 모두 동일하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실제로 드러내려 한 신앙적 목적을 선언했다. 셋째, 개혁교회가 제정한 모든 신앙고백들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종말론적인 성취를 소망하며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 점에 있어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들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계승한 헌신의 선언이었다.

16세기 이래 개혁교회가 여러 신앙고백들을 각 지역과 시대의 다양한 상황 맞추어 제정했듯이 오늘날에도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처를 담은 신앙고백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교회 안의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상대화함으로써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려 했던 역사적 개혁신학의 강조점들이 반드시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6. 신약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들과 총회 신학 정체성 연구 -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

이풍인 교수(총신신대원)

우리 교단이 생긴 지 100년이 넘었다. 그 동안 개혁주의 전통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적·질적 성장을 맞보았다. 이러한 성장 이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건전한 신학이었다. 우리 신학을 대변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글이 있다. 존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많은 글들이 우리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 신앙을 잘 대변해 주는 표준 문서라 할 수 있다. 지난 100년 이상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이러한 정통주의 신학과 개혁신학을 고수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었다. 교단 역사가 100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서양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들 당시 상황에 맞게 표현했던 신조와 신앙고백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교단의 신학정체성을 표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시작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교단에는 신학적인 소양을 잘 갖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많다.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우리 교단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일 것이다.

필자는 신약학을 연구한 사람으로 다양한 신앙고백서의 근간이 된 신약성경에 나타난 신앙고백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던 시기보다 훨씬 후대에 생겨난 체계적인 신앙고백문들은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로 역할했던 축약된 형태의 신앙고백들은 신약성경에 존재한다. 신약성경에 포함된 신앙고백은 결코 도서관이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만들어졌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덧붙여진다는 데 있다. 구약의 신앙고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9절이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다른 민족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명한 유일신 사상을 발견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사역을 펼치셨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평범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전하셨다. 처음에는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던 그분에게서 사람들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사역(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이러한 신앙고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능했고, 이후에 성도들은 새신자 교육, 세례, 예배 시 찬송, 박해의 현장에서 이 신앙을 기키기 위해 몸부림쳤다. 바울은 그가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러한 신앙고백들을 담고 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사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바울서신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간결한 형태의 고백들과 복잡한 형태의 고백들이 존재한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관련된 신앙고백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적 신앙고백도 등장한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살피는데 신약성경의 신앙고백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앙고백들 속에 그리스도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단이 만드는 정체성 선언문이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삶의 현장성과 역동성이 있는 내용이 되어 이제까지 교회 역사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탁월한 선언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7. 개혁신학의 성화론과 총회 신학정체성 연구 - 총신의 성화론 논의를 중심으로 -

김광열 교수(총신신대원)

21세기 신학적 혼돈 속에 있는 한국교회 앞에서 본교단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 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본 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신학의 성화론의 정체성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평양신학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총회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던 조직신학 교수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본 교단 총회와 교회들은 개혁신학의 구원론과 성화론이 제시하는 신학과 신앙을 향유해왔다. 이늘서, 구례인, 박형룡 박사와 같은 교수님들은 현대신학의 도전들 속에서 성경적 개혁신학의 구원론을 가르쳤으며, 여러 복음주의 교단들이 제시하는 성화론들 속에서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성화적 삶이 무엇인지를 교수함으로서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개혁신학의 기초위에 바르게 정립해주었다.

첫째, 총신에서 가르쳐온 구원론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개혁신학 구원론이었다. 중생의 사건에서부터 구원의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만 주어지는 구원임을 말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구원을 가르치는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의 구원관 뿐만 아니라, 루터교회,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들도 성경에서 벗어난 이해라고 확인해주었다.

둘째, 총신의 교수들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풍부한 역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신학은 제2축복 신학에서 주장하는 중생 이후의 성령세례를 거부하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늘서교수나 박형룡교수의 조직신학의 가르침들 속에서 개혁신학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박형룡 박사도 성령충만의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이다.

요약하면, 지난 세기 총신의 교수들은 분명한 개혁신학의 구원론과 성화론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되, 한국교회 성도들이 경험했고 또 사모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집회의 체험들을 담아줄 수 있는 성화론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셋째, 21세기를 살아가는 본 교단 총회는 지난 세기 동안에 총신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는 개혁신학 구원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서 개혁신학 성화론의 독특성과 장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성화론을 제시함으로써 총회 신학적 정체성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자 G. Vos와 조직신학자 J. Murray의 가르침들은 개혁신학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다른 복음주의 성화론들 속에서 개혁신학 성화론의 장점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Vos의 성경신학 연구의 공헌은 종말 개념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Murray는 그러한 가르침을 성화론에 적용하여 이 땅에서부터 죄의 통치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 성화”를 가르쳤다. 더 나아가, 점진적 성화와 함께 결정적 성화를 제시하는 Murray의 성화론은 루터교 성화론이나 제2축복 신학을 가르치는 웨슬리 성화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중요한 개혁신학의 특징들을 밝혀주는 개혁신학 성화론인 것이다.

1)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중요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죄의 통치가 무너졌음을 가리키는 “죄에 대한 죽음”의 경험(롬6:1이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라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설명되는 결정적 성화는, 신자의 신앙생활을 단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지리한 과정이라는 이해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성화적 삶을 확신있게 살아가도록 독려해 줌으로서 개혁신학 성화론의 장점을 드러내준다.

2) 하나님의 주권의 전포괄성을 강조하는 개혁신학의 특징을 제시해 준다. 롬5장~6장에서 “죄의 통치의 무너짐”은 우주적인 성격임을 밝혀줌으로서, 주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죽음도 우주적으로, 전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되는 사건임을 드러내 준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화적 싸움은 그들의 삶의 전 영역들 속에서 죄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주의 통치를 세워나가야 하는 총체적 성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의 성화론에 대한 정체성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가르치는 개혁신학 구원론의 기초 위에서,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주권의 전포괄적 성격을 담아내는 성화론을 제시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화적 삶의 동력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성화적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혁신학의 성화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5회 신학부 수임건에 대한 최종보고〉

1. 소래노회가 현의한 WEA신학에 관한 연구의 건은 이국진 목사, 이풍인 교수에게 연구수임을 맡겨 연구한 결과 WEA 신학 연구의 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하다.
2. 동대전제일노회가 현의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데 주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요청의 건은 총신대 이풍인교수에게 연구수임을 맡겨 연구한 결과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적예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의하다.(마 6:9 ~ 13)
3.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강도권에 대하여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함으로 신학부에 1년 더 연구토록 한 결정에 대하여 정승원 교수, 임경근 교수, 신현철 목사, 박형대 교수에게 연구수임을 맡겨 연구한 결과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다.
4. 전남노회 현의안으로 급변하는 시대(코로나19 여파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실) 가운데 신학적으로 합당한 예배모범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배모범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합당한 예배모범을 제시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은 총신대 양현표 교수에게 연구수임을 맡겨 연구한 결과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관해서는 대면 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고 비상적 상황(가령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결의하다.
5. 전남노회가 현의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번역의 건은 제103회, 104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6. 남광주노회가 현의한 성령강림주일 제정의 건은 103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7. 한남노회, 한서노회가 현의한 총신대학교 신학사상에 대한 조사처리 현의의 건은 총신대학교의 재발방지에 대한 처리방안(329P)을 제출받다.
8. 서울강남노회가 현의한 메시아닉 주 단체의 사상에 대한 총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의 건은 제101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9. 알이랑 신학 조사의 건과 문동진 씨 신학과 신앙조사의 건은 이대위로 이첩하기로 하다.
10. 제105회 총회가 신학부의 청원을 받아 허락한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문 작성은 신학부가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8인의 연구위원들에게 예비연구를 수임하였다.
 - 1) 김길성 교수 : 신앙고백서와 총회신학정체성 연구
〈통합 교단의 신앙고백서 평가를 중심으로 비교〉
 - 2) 이상원 교수 : 개혁주의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현대사회의 윤리적인 문제들
〈동성애와 동성혼, 낙태, 시험관 수정, 줄기세포, 안락사, 인공지능〉

- 3) 김요셉 교수 : 제네바에서 웨스트민스터까지
종교개혁 시대 이후 개혁파 신앙고백의 배경과 교회 이해
- 4) 이풍인 교수 : 신약성경에 나타난 신앙고백들과 총회 신학정체성 연구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 5) 이상웅 교수 : 죽산 박형룡과 예정합동의 신학적 정체성
- 6) 임종구 교수 : 예정합동의 신학정체성연구
〈기장 제6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7) 김광열 교수 : 개혁신학의 성화론과 총회 신학정체성 연구
〈총신의 성화론 논의를 중심으로〉
- 8) 김성태 교수 : 예정 합동 총회의 교회 연합과 협력의 성경적 신학적 원리연구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을 위한 예비연구의 결론

총회의 신학은 예정통합, 기장의 신학과 달리 철저한 개혁주의 성경관(성경무오)의 기초 위에서 제네바의 칼뱅과 개혁파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명시적으로 교단의 신학 정체성으로 받고 있다. 이런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 윤리논쟁에서 제기되는 동성애와 동성혼, 낙태, 인공지능, 성화론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창조원리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 특히 총회의 신학은 죽산 박형룡의 신학의 원리인 청교도 개혁주의와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의 결정적인 기초로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에 정초를 두고 있다.

결론 : 이와 같은 예비연구의 바탕에서 구체적인 신학 정체성 선언문 작성이 작성되어 총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활동연장이 필요하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신학부 사업 및 재정 청원의 건

1. 제104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총회의 신학과 관련된 현의안은 반드시 신학부로 이첩하여 연구 보고한 후에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에서 신학적 현의가 결의되면 결의 후 3년 이내에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 작성을 위한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라며 재정을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사업비 : 4,000만원

(1) 회의비 : 500만원

(2) 공청회 : 1,000만원

(3) 책자발간 : 1,000만원

(4) 연구비 : 1,500만원

2021년 9월

신 학 부

부 장 신현철

서 기 임종구